



의정부주보

발행인 이기현 • 편집 홍보국 •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• 전화 031-850-1400(대표), 1433-5(홍보국)

103위 성인

성녀 김효임 골롬바 (1814-1839)



동정 순교자 김효임은 서울 근교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.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, 그의 가족은 모두 입교하여 유방제(劉方濟) 신부에게 세례성사를 받았다. 그는 두 여동생과 함께 동정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독실한 신앙생활을 이어갔다.

그러던 중 1839년 4월, 김효임은 경기도 고양군 용머리(현 고양시 용두동)에서 동생 김효주와 함께 체포되었다. 두 자매는 포청에서 이른바 학춤이라는 혹형과 함께 뜨겁게 달군 쇠붙이로 열세 군데나 지져지는 고문을 받았다. 한 번은 옷이 벗겨진 채 남자 죄수 방에 넣어지기도 했는데, 갑자기 두 자매의 몸에서 신비스러운 힘이 나와 남자 죄수들이 그들을 범할 수 없었다고 한다. 김효임은 형조판서의 신문에서도 영리하고 겸손하게 대답하여 감동을 주었다. 이후 5개월 동안 옥에서 병과 싸운 그는 9월 26일, 8명의 교우와 함께 서소문 밖 형장에서 참수형을 받고 26세의 나이로 순교하였다.

성화_김형주 작, 「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」 ©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, 2023

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• 성서 주간

소리 주보 ▶



입당송 묵시 5,12; 1,6 참조

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권능과 신성과 지혜와 힘과 영예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옵니다.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.

제1독서 예제 34,11-12.15-17

화답송 시편 23(22),1-2 7.21-3.5.6(1)

- ◎ **주님은 나의 목자, 아쉬울 것 없어라.**
- 주님은 나의 목자, 아쉬울 것 없어라.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네. ◎
-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,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고, 당신 이름 위하여,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. ◎
-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,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,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. ◎

○ 제 한평생 모든 날에,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,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. ◎

제2독서 1코린 15,20-26.28

복음 환호송 마르 11,9.10 참조

- ◎ **알렐루야.**
-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, 찬미받으소서!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! ◎

복음 마태 25,31-46

영성체송 시편 29(28),10-11

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.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.